

No. 2013-13

# 일본 경제 동향

(Japan Weekly Economic Digest)

2013. 03. 25

- ① 일본경제지표
- ② 주간경제이슈  
: 일본의 중소제조업, 탈중국화 확대
- ③ 경제정책동향
- ④ 일본기업동향
- ⑤ 한국관련워치

## 1 일본경제지표

### □ 주요 경제지표

- 2012년 4/4분기 GDP성장률은 ▲0.4%로 3/4분기보다 마이너스 폭이 축소되었고, 연간으로는 1.9% 기록
- 2012년 무역수지가 사상 최대인 7조엔 적자를 기록한 데 이어, 2013년 1월에는 월간으로 사상 최대인 1.6조엔 적자, 2월에도 7,775억엔 적자로 8개월 연속 적자 행진
  - \* 2012년 對한국 무역수지 흑자는 16.7천억엔으로 축소
- 2012년 해외직접투자는 對세계, 對한국 모두 2011년보다 증가
- 2012년 경상수지는 4.7조엔으로 2011년보다 흑자폭이 대폭 축소
- 2013년 2월 평균 엔/달러 환율은 달러당 93.2엔, 3월 25일 기준 94.9엔

구분	2011	2012	2012						2013	
			7월	8월	9월	10월	11월	12월	1월	2월
실질GDP증가율(연율,%)	0.3	(1.9)	▲3.5			▲0.4			...	...
수 출(천억엔)	653	(637)	53	50	54	51	50	53	48	<b>5.3</b>
수 입(천억엔)	697	(707)	58	58	59	57	59	59	64	<b>6.1</b>
對한국 수출	52.1	(49.1)	3.96	3.85	3.98	3.94	3.93	4.35	4.01	<b>4.25</b>
對한국 수입	32.9	(32.4)	2.78	2.44	2.42	2.70	2.82	2.84	3.12	<b>2.92</b>
직접투자(억달러)	(1,157)	(1,223)	287			339			...	...
對한국 투자	(24)	(40)	4.9			9.4			...	...
소비자물가(%)	0.0	(0.0)	▲0.2	0.2	0.2	0.0	▲0.3	▲0.1	▲0.3	...
실업율(%)	4.5	(4.4)	4.3	4.2	4.3	4.2	4.2	4.3	4.2	...
경상수지(천억엔)	76.2	(47)	6.3	4.5	5	3.8	▲2.2	▲2.6	...	...
엔화 對미달러	79.1	(80.1)	79	78.7	78.2	79	80.9	83.6	89.2	<b>93.2</b>
환율 對원화	(1,391)	(1,413)	1,446	1,438	1,439	1,401	1,344	1,288	1,197	<b>1,166</b>
외환준비고(기말 천억달러)	12.9	12.7	12.7	12.7	12.8	12.7	12.7	12.7	12.7	<b>12.6</b>
은행대출금리(%)	1.48	...	1.40	1.40	1.38	1.38	1.38	1.36	1.36	...

주1) ( )는 역년(1~12월)기준

2) 소비자물가, 실업률, 환율, 대출 금리는 기간평균

자료: 일본경제신문, 재무성, 한국은행

### □ 주요 연구보고서

- 『현대 수확체증산업의 국제경쟁 : 기술혁신과 국제경쟁』 국제무역투자연구소, 3월16일  
\*출처:<http://www.iti.or.jp/kikan91/91tejima.pdf>
- 『상사의 자원 · 에너지 관련 비즈니스 환경』 일본무역회, 3월19일  
\*출처:[http://www.jftc.or.jp/shoshaeye/pdf/201303/201303\\_20.pdf](http://www.jftc.or.jp/shoshaeye/pdf/201303/201303_20.pdf)
- 『새로운 산업정책체계 구축 : 세계 제1의 비즈니스 환경에의 길』 일본경제단체연합회, 3월20일  
\*출처:[http://www.keidanren.or.jp/policy/2013/019\\_honbun.pdf](http://www.keidanren.or.jp/policy/2013/019_honbun.pdf)

## ② 주간경제이슈 : 일본의 중소기업, 탈중국화 확대

### □ 고임금 및 기술유출에 대응한 생산거점 분산

- 일본 중소기업들이 아시아지역에서의 생산거점 분산 움직임이 확대되고 있음
  - 중국의 인건비 상승에 따라 코스트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미얀마, 캄보디아 등지에 생산입지를 찾아 나서기 시작
  - 섬유 등 노동집약적 산업뿐만 아니라, 기계 업체들도 기술유출방지 차원에서 거점을 분산시키는 사례가 나오고 있음

### □ 의류 업체의 사례 : 중국에서 인력확보가 어려움

- 의류 제조업체 도쿄인은 미얀마에 봉제공장을 건설, 금년 가을 가동예정
  - 미얀마 양곤공업단지에 129만달러 투자, 150명 고용, 생산제품 전량 일본에 수출
  - 2007년까지 중국 대련의 합작공장에서 생산하고 있었으나, 젊은 노동자들의 저임금 기피로 인력확보가 어렵게 되자 인도네시아, 베트남 등으로 이전
- JETRO에 의하면 양곤은 일반 직원의 기본 월 급여는 68달러로(2012년 1월 시점) 중국대련의 20%에 불과, 현재 중국에서의 생산비율을 더욱 축소 방침

### □ 텐트 업체의 사례 : 중국내 위탁비용 상승

- 대형 텐트업체인 태양공업은 물류자재로 쓰이는 컨테이너 백을 캄보디아에서 생산
  - 수도 프놈펜 공업단지에 공장을 신설, 중국에서의 위탁생산을 순차적으로 축소하여 캄보디아에 이전
- 3억엔을 투자하여 신규 공장을 설립하여 화학 및 식품업체들이 원료의 반송 등에 사용되는 용기를 생산
  - 약 100명의 종업원을 고용, 컨테이너백 매출액은 연간 약 40억엔
  - 저가품은 가격경쟁이 치열한데다 중국에서 위탁비용이 상승하고 있어 캄보디아의 신규 공장을 활용하여 비용을 절감

## □ 커넥터제조장치 업체의 사례 : 중국에서 기술유출 리스크

- 신흥국에서 고부가가치제품을 생산하는 경우, 기술 및 노하우의 유출위험도 고려하여 진출지역을 선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
- 커넥터의 자동조립장치를 제조·판매하는 TSS사는 2013년 중 대만에서 설계개발에서 조립까지를 담당하는 신규 공장을 가동할 예정
- 인건비만 보면, 대만이 칭타오보다 비싸나 우수한 개발전문 인력이 양성되기까지는 수년이 걸리고, 대만이 이직이 빈번한 중국에 비하여 전문 인력의 정착도가 높고 기술의 누설위험도 적기 때문임
- 향후 범용품은 칭타오, 고급품은 대만에서 생산할 방침

## □ 동남아 진출도 인건비 이점 감소에 대응한 생산거점 전략 필요

- 생산거점의 분산처로 기대되는 동남아시아국가들의 임금수준은 아직은 중국의 대도시보다 낮으나, 자동차 관련 외국기업 등의 진출에 따른 노동시장의 공급부족으로 가파른 임금상승이 이루고 있음
- 금년 1월부터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는 최저임금이 44%상승, 베트남에서도 전국적으로 16~18% 상승함에 따라 인건비 측면에서의 이점은 서서히 줄어들 가능성이 큼
- 동남아시아에 거점을 설치하는 경우, 대일 수출만이 아니고 현지수요를 개척하여 ASEAN역내 관세철폐 이점을 활용하는 전략도 필요하다는 지적임

### ③ 경제정책동향

#### □ 일본의 자동차 안전기준, EU와 통일

- 일본과 EU가 인증기준(안전·환경 기준)을 표준화하기로 함
  - 일본과 유럽의 자동차업체가 자국에서 인증을 받게 되면 수출상대국에서 번잡한 인증절차를 거치지 않게 됨
  - 자동차의 인증기준은 일본·EU FTA 교섭에서 중요한 테마로서, 일본이 유럽기준에 맞추어 시장을 개방하는 대신, EU에 자동차 관세 철폐를 요구
- 인증기준의 표준화 시기는, 일본은 3년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, EU는 보다 빠른 시일 내 공통화를 요구할 것으로 보여 2년 정도가 될 가능성이 있음
- 일본은 10%에 달하는 EU의 자동차 관세철폐가 목적
  - 일본은 무관세이기 때문에 EU는 비관세장벽문제가 교섭대상이며 자동차의 인증 기준이 그 핵심임
  - 현재, 유럽차가 일본에서 주행하기 위해서는 일본의 안전·환경 기준으로 심사를 받아 인증을 얻기까지 2개월 정도 소요되며, 일부를 제외하고는 샘플차량도 제시해야 때문에 비용부담도 큼
  - 일본과 유럽이 안전기준을 표준화하게 되면 유럽의 기준을 만족한 자동차는 일본에서 심사 없이도 바로 판매가능
- 일본정부는 조기에 유럽 등이 참가하는 IWVTA이라 불리는 국제적인 자동차 인증기준을 완전히 채택
  - 국제기준은 승용차만 47개 항목이 있는데 일본은 브레이크 등 33개 항목을 채택하고 있으며, 아직 14개 항목은 일본 독자적인 기준을 사용하고 있음
- EU는 일본과 FTA교섭 시작 1년 후, 일본의 자유화 추진상황을 평가하여, 불충분하다고 판단되면 교섭을 중단할 방침임
  - 이를 고려하여 일본은 자동차기준의 표준화작업을 가속화하고 있으나, 일·EU FTA가 발효되기까지는 4~5년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
  - EU는 일본의 경자동차 우대정책도 문제시하고 있는데다, 의약품과 식품첨가물의 규제완화도 요구하고 있음
- 한편, 미국도 TPP 사전협에서 일본에 자동차 인증제도의 표준화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으나, 미국의 제도는 독자성이 강하여 통일이 어렵다는 지적

## 4 일본기업동향

### □ 파나소닉의 플라즈마TV 생산중단으로, 일본의 플라즈마TV 생산 종료

- 파나소닉이 금년부터 3년간 TV사업을 대폭 축소할 방침. 2014년부터 플라즈마 TV사업 중단을 시작으로 액정TV도 패널생산을 축소하고 외부조달을 늘릴 계획
- 적자가 지속되는 TV사업은 패널의 자전주의(自前主義 : 독자적으로 모든 일을 수행)방식에서 탈피하는 방향으로 구조개혁을 일단락, 앞으로는 항공기용 시스템이나 자동차부품 등 기업의 수요를 대상으로 한 사업을 중심으로 수익 구조 전환을 서두를 방침임
- 파나소닉은 이달 28일 발표할 중기경영계획에 TV사업의 축소 방침이 포함되어 있는데, 2009년에 1조엔을 상회하였으나, 2015년에는 절반이하로 축소될 전망
- 일본 국내에서는 박형TV의 시장이 축소됨에 따라, 액정과 플라즈마 2개 방식을 계속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고 판단, 플라즈마TV의 신규 개발은 이미 중지
  - 시장규모가 10%도 안 되는 플라즈마TV사업에서 철수, 종업원의 배치전환 등을 검토
  - 액정 TV사업도 축소 대상으로 액정패널은 히메지공장에서 생산하고 있으나, 금년 중 외부조달비율을 70%로 높여 한국 LG전자 등으로부터의 조달할 방침
- 상품의 라인업은 계속 유지하면서 액정 TV사업에 투입했던 인력이나 자금을 성장분야에 재배치
  - 히메지 공장은 타블렛용 중소형 액정 등에 생산을 이전
- 소니와 제휴, 양산기술을 확립해왔던 유기EL TV는 2014년도 제품발매를 목표
  - 유기EL TV는 액정보다도 소비전력이 적고 화상이 선명한 점 등의 특징이 있으나 투자부담을 줄이기 위해 소니 등 타사와의 협업이나 합작, 생산위탁을 전제로 사업화를 추진할 계획임
- 파나소닉의 철수로 플라즈마TV를 생산하는 일본 국내 가전업체는 사라지게 되는 셈

## 5 한국관련워치

### □ 일본 부품업체들, 삼성전자와 거래확대에 주력

- 한국 삼성전자가 15일 스마트폰의 기함 기종인 갤럭시S4를 4월말부터 세계시장에서 순차적으로 발매, 스마트폰 시장에서의 수위자리를 굳힐 것으로 보임에 따라, 일본의 전자부품업체들이 삼성과의 거래확대에 나서고 있다고 일본 경제신문이 보도
  - 스마트폰 시장을 견인해온 미국 애플사의 움직임이 둔화된 가운데, 일본의 전자부품업체들이 한국 삼성전자와의 거래확대에 힘을 쏟고 있음
  - 특히 초기 출하량이 월 1,000만대 이상으로 추정되는 갤럭시S4에 기대가 큼
- 무라타제작소는 회로의 전류를 정비하는 미세한 적층세라믹컨덴서(MLCC)와 특정 주파수의 신호를 찾아내는 SAW(표면탄성파)필터, 무선LAN모듈 등 전자부품이 S4에 사용
  - 무라타제작소의 부품은 어떤 스마트폰에도 필수적인 범용성이 높은 제품이 많음
  - 주요 휴대전화업체들과는 전방위 거래를 하고 있어, 삼성전자에 대한 출하액은 미국 애플사에 이어 두 번째로 큰 규모임
- 엘피다메모리는 데이터를 기억하는 모바일용 DRAM을 삼성으로부터 수주
  - 동사는 미국 애플 등 특정 고객에 대한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아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작년부턴 삼성과 교섭을 계속 중
  - 자체발광 유기EL패널을 지탱해주는 고기능소재분야에서는, 빛을 조정하는 편광판을 스미토모화학이 공급할 것으로 보여 지고 있음
- 그러나 애플은 스마트폰의 특허소송 상대인 삼성으로부터 패널 등의 조달을 억제하고 일본산 부품을 적극 사용해옴
- 한편, 삼성은 그룹사에서 패널이나 전자부품을 내제하고 있어 애플에 비하면 삼성과 일본의 전자부품의 거래량은 아직 적은 편임